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이 청소년 주관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백승희¹, 김지현^{2*}

¹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박사, ²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박사

A Convergence Study on association of Internet Use Time with Perceived Status in Adolescents

Seung Hee Baek¹, Ji hyun Kim^{2*}

¹Ph. D, Department of Content Convergence, KyungHee University

²Ph. 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주관적 상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주관적 상태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이분형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서는 학습 목적 이외의 인터넷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주관적으로 불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서의 각각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지에서도 인터넷사용시간이 길수록 살이 쪼면 편이라고 느낄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인터넷을 300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교차비가 1.19배(CI=1.10-1.30) 높게 나타났다. 학습 목적 이외의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권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융합,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행복,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internet use time that young people use for purposes other than learning purpose, to grasp the perceived status of the youth according to internet use time and to grasp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m. Using the 2016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the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perceived status according to internet use time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perceived health and perceived oral health the odds ratios of perceived who feel that they are perceived and unhealthy as the time spent using the Internet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use the Internet for learning purposes. In the perceived body type, the odds ratio of being overweigh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longer internet use time. The odds ratios of perceived happiness were 1.19 times (CI = 1.10-1.30) higher than the perceived expectation of unhappiness when using the Internet for over 300 minutes. The use of the internet for a long time other than the purpose of learning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ealth and happiness of the youth, so we think that the recommended time for using the internet is necessary.

Key Words : Convergence, Adolescent, Internet use time, Perceived status, Perceived body type, Perceived happiness, Perceived oral health

*Corresponding Author : Ji hyun Kim (muchicchun@naver.com)

Received September 3,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1. 서론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국가지표체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0.3%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높은 99.9%의 이용률을 보인 연령대는 10~39세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전 세계로 연결됨으로써 무한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개인은 이를 통해 타인의 단편적인 생활을 열람할 수도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부작용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인터넷 중독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학업적, 사회적 기능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스스로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다[1]. 인터넷 중독은 정보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2]로 심리적으로 더욱 진화되어 개인의 삶에 회의감을 들게 하는 정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정서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이 고위험 대상이며, 우울, 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발전하는 전환기로,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4]. 성인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된 청소년에게는 학습목적 이외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시간 가상공간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이성적 사고보다는 무비판적인 정보흡수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부작용들은 다른 집단보다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상대적으로 외부활동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운동신경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며, 정보획득과 여가 및 오락추구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한다[5].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6].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게임중독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도전정신을 길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하게 몰입될 경우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7].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역기능으로 신체문제를 나타내었다[8].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분별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한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보건산업 분야에도 적용됨[9]에 따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인 청소년임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학습 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간에게 미치는 폐해를 살펴봄으로써 정보통신기술과 의학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융합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표본 추출틀은 2015년 전국 중·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17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 와 학급을 추출하였다[9].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 65,52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인지로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를 '건강'으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불건강'으로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객관적 임상지표 보다 주관적이라는 문제점과,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등의 영향이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복합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질환과 의료이용에 대한 관련성을 보고하여 주관적 건강을 측정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는 지표이다[10]. 주관적 체형인지는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를 ‘마른편’으로, ‘약간 살이 찐 편이다’와 ‘매우 살이 찐 편이다’는 ‘살 찐 편’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매우 행복한 편이다’, ‘약간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를 ‘행복함’으로, ‘약간 불행한 편이다’와 ‘매우 불행한 편이다’는 “불행함”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를 ‘구강건강’으로,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쁜 편이다’는 ‘불구강건강’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인터넷 사용시간은 ‘최근 30일 동안, 학습 목적 이외에 하루 평균 인터넷을 몇 분 정도 사용하였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음, 120분미만, 120-179분, 180-239분, 240-299분, 300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TATA 14.0 version을 이용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사용시간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했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 인지, 주관적 체형 인식, 주관적 행복,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주관적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공변량으로 보정하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120분 미만인 경우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을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학습목적 이외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분포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21.2%, 120분미만 12.9%, 120-179분 13.7%, 180-239분 14.1%, 240-299분 26.7%로 나타났다. 성별은 인터넷 이용안함, 120분미만은 여성이 높았고, 120분 이상은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학년, 학업성적, 생활수준, 거주형태, 고민상담자 여부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internet use

Variable	Internet use(min/day)					
	No use	<120	120-179	180-239	240-299	≥300
	n(%)	n(%)	n(%)	n(%)	n(%)	n(%)
	13,767(21.2)	8,560(12.9)	8,858(13.7)	9,191(14.1)	7,381(11.4)	17,771(26.7)
Gender						
Male	6,596(20.1)	3,505(10.2)	4,663(13.9)	5,298(15.7)	4,178(12.5)	9,563(27.7)
Female	7,171(22.4)	5,055(15.8)	4,195(13.5)	3,893(12.5)	3,203(10.3)	8,208(25.6)
p-value'	<0.001					
School year						
Middle	6,304(19.6)	4,690(14.6)	4,340(13.8)	4,450(13.9)	3,612(11.4)	8,823(26.8)
High	7,463(22.5)	3,870(11.5)	4,518(13.6)	4,741(14.3)	3,769(11.5)	8,948(26.7)
p-value'	<0.001					
Academic-grade						
Good	4,554(18.3)	3,745(14.7)	3,701(14.9)	3,682(14.7)	3,014(12.1)	6,543(25.2)
Middle	3,752(20.1)	2,412(12.8)	2,588(14.0)	2,703(14.8)	2,198(12.0)	4,973(26.4)
Low	5,461(25.5)	2,403(10.9)	2,569(12.0)	2,806(12.9)	2,169(10.1)	6,255(28.7)
p-value'	<0.001					
Living standard						
Comfort	5,289(21.9)	3,478(14.1)	3,471(14.5)	3,405(14.2)	2,760(11.5)	5,841(23.8)
Normal	6,294(20.4)	4,070(13.0)	4,199(13.7)	4,378(14.1)	3,536(11.6)	8,579(27.1)
Poor	2,184(21.8)	1,012(9.6)	1,188(11.7)	1,408(13.9)	1,085(10.5)	3,351(32.4)
p-value'	<0.001					
Residence type						
Usually with my family	12,869(20.9)	8,084(12.9)	8,471(13.8)	8,827(14.3)	7,077(11.5)	16,935(26.8)
Relative's house	212(39.3)	50(9.0)	43(7.5)	53(9.5)	36(6.9)	152(27.8)
Board, rent etc	519(21.4)	392(15.4)	323(13.9)	298(12.2)	249(10.8)	625(26.3)
ursery facility	167(57.2)	34(10.9)	21(5.6)	13(3.9)	19(4.1)	59(189.3)
p-value'	<0.001					
Counselor						
Yes	10,947(21.4)	7,023(13.4)	7,072(13.9)	7,224(14.1)	5,775(11.4)	13,415(25.8)
No	2,820(20.4)	1,537(10.9)	1,786(12.9)	1,967(14.1)	1,606(11.4)	4,356(30.3)
p-value'	<0.001					

'p-value wer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3.2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주관적 상태 교차비

Table 2는 연구대상자 중 비교 대상인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4개의 주관적 상태별 분포와 보정되지 않은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주관적 상태인 주관적 건강인지는 불건강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체형은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행복은 불행한 편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2

Table 2.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perceived status by internet use

Variable	Perceived health			Perceived body type		
	Healthy	Un-healthy	Univariate OR (95% CI)	Normal	Heavy	Univariate OR (95% CI)
	n	n		n	n	
Internet use(min/day)						
No use	13,006	761	1.00	8,766	5,001	1.00
<120	8,142	418	0.88(0.78-0.99)	5,426	3,134	1.01(0.96-1.07)
120-179	8,425	433	0.88(0.78-0.99)	5,599	3,259	1.02(0.97-1.08)
180-239	8,668	523	1.03(0.92-1.16)	5,604	3,587	1.12(1.06-1.18)
240-299	6,945	436	1.07(0.95-1.21)	4,479	2,902	1.14(1.07-1.20)
≥300	16,270	1,501	1.58(1.44-1.73)	10,092	7,679	1.33(1.27-1.40)
Perceived happiness						
No use	12,726	1,041	1.00	11,681	2,086	1.00
<120	8,019	541	0.82(0.74-0.92)	7,390	1,170	0.89(0.82-0.96)
120-179	8,326	532	0.78(0.70-0.87)	7,565	1,293	0.96(0.89-1.03)
180-239	8,575	616	0.88(1.79-0.97)	7,713	1,478	1.07(1.00-1.15)
240-299	6,875	506	0.90(0.81-1.00)	6,174	1,207	1.09(1.01-1.18)
≥300	16,178	1,593	1.20(1.11-1.31)	14,162	3,609	1.43(1.34-1.51)
Perceived oral health						
No use	12,726	1,041	1.00	11,681	2,086	1.00
<120	8,019	541	0.82(0.74-0.92)	7,390	1,170	0.89(0.82-0.96)
120-179	8,326	532	0.78(0.70-0.87)	7,565	1,293	0.96(0.89-1.03)
180-239	8,575	616	0.88(1.79-0.97)	7,713	1,478	1.07(1.00-1.15)
240-299	6,875	506	0.90(0.81-1.00)	6,174	1,207	1.09(1.01-1.18)
≥300	16,178	1,593	1.20(1.11-1.31)	14,162	3,609	1.43(1.34-1.51)

3.3 주관적 상태와 인터넷시간과의 관련성

Table 3은 주관적 상태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갖는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하고 비교한 최종 모형이다. 주관적 건강인지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주관적 불건강 가능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체형인지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살이 썬 편이라고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불행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구강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Adjusted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perceived status by internet use

Variable	Perceived health	Perceived body type	Perceived happiness	Perceived oral health
	AOR ^a (95% CI)			
Internet use(min/day)				
No use	1.00	1.00	1.00	1.00
<120	0.97(0.86-1.10)	1.05(0.99-1.11)	0.95(0.85-1.06)	0.97(0.90-1.05)
120-179	0.97(0.86-1.09)	1.08(1.02-1.15)	0.88(0.79-0.98)	1.03(0.96-1.11)
180-239	1.13(1.01-1.28)	1.20(1.14-1.27)	0.96(1.87-1.07)	1.14(1.06-1.22)
240-299	1.19(1.05-1.34)	1.22(1.15-1.29)	0.99(1.89-1.11)	1.17(1.08-1.27)
≥300	1.62(1.47-1.77)	1.38(1.32-1.44)	1.19(1.10-1.30)	1.42(1.34-1.51)

Gender				
Male	1.00	1.00	1.00	1.00
Female	1.74(1.63-1.86)	1.47(1.42-1.52)	1.46(1.38-1.56)	1.22(1.17-1.27)
School year				
Middle	1.00	1.00	1.00	1.00
High	1.91(1.78-2.05)	1.24(1.20-1.28)	1.42(1.33-1.51)	1.40(1.34-1.46)
Academic-grade				
Good	1.00	1.00	1.00	1.00
Middle	0.90(0.83-0.99)	1.05(1.00-1.09)	1.02(0.94-1.11)	0.96(0.91-1.02)
Low	1.30(1.20-1.40)	1.35(1.30-1.40)	1.58(1.47-1.70)	1.33(1.26-1.40)
Living standard				
Comfort	1.00	1.00	1.00	1.00
Normal	1.14(1.06-1.24)	1.01(0.98-1.05)	1.12(1.04-1.21)	1.46(1.39-1.54)
Poor	2.19(2.00-2.39)	1.30(1.24-1.37)	2.66(2.45-2.89)	2.74(2.58-2.92)
Residence type				
With family	1.00	1.00	1.00	1.00
Relative's house	1.00(0.72-1.39)	0.97(0.82-1.16)	2.23(1.77-2.81)	1.21(0.98-1.48)
Board, rent etc	0.93(0.79-1.09)	0.96(0.88-1.04)	1.21(1.05-1.41)	1.06(0.96-1.19)
Nursery facility	1.07(0.71-1.61)	0.66(0.52-0.82)	1.14(0.81-1.61)	0.89(0.67-1.20)
Counselor				
Yes	1.00	1.00	1.00	1.00
No	1.68(1.56-1.81)	1.15(1.11-1.20)	2.54(2.38-2.72)	1.30(1.24-1.37)

^aAOR: Adjusted odds ratio

4. 고찰

인터넷 중독은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성행동 특성, 정신적 특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개인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12]. 본 연구는 학습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 개인의 주관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첫째,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지를 신체적(Physical), 기능적(Functional), 심리적(Psychological)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노인의 주관적 건강지수 상태에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13].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게 하는 게임 몰두 등은 불건강한 생활습관이다[14].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는 거북목 증상 및 허리디스크 등의 신체 불균형을 유발한다. 인터넷 중독증상이 심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불안감이

높으며[15],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인터넷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6]. 이는 우울과 같은 증상이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침[17]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18]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행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짐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장기간 인터넷 사용은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신체기능이 감소하게 되며,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주관적 건강인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인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건강에 대한 인지가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관적 체형인지와도 연계되어 인터넷의 사용량이 높을수록 개인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더욱이 인터넷에는 상업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체형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된다. 특히 열등감과 같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과다사용을 보이기 쉬운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과 일치[19]하므로 장시간 인터넷 사용은 개인의 주관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청소년 개인의 주관적 행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가, 목표성취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에서는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인으로 물질,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방식 등을 제시하였다[20].

청소년기는 가정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청소년의 행복은 가정환경보다 또래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하였다[21].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 관계의 형성과 청소년으로서의 모범적인 행동과 생활방식 추구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미추진 되어 주관적 행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청소년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22]. 인터넷 사용목적은 방대하나 청소년은 현실에서 부족한 사회자본을 충족하기 위해서 관계목적의 인터넷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

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23].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또래 집단간의 교류가 온라인 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가 많아짐으로써 감정의 교류와 같은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은 인간에게 현실에 대한 감각을 낮아지게 하는데 이는 미국 컴퓨터접속중독센터에서 현실세계에 불만족을 느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해짐을 발표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행복을 구성하는 관계형성과 생활방식을 저해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자기개념의 차이의 연구에서도 외모, 건강, 교우관계, 가족관계 영역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2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인 청소년 집단과 같은 결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개인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자료는 단면조사로 수행된 연구이므로 인터넷 사용시간과 주관적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사용시간을 학습 목적 이외로 한정하여 자가 보고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셋째, 혼란변수들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 요인과 같은 혼란 변수를 보정하지 못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있어 학습목적 이외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건강과 정서의 인지정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적정 시간에 대한 권장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켜야 하는 시기로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정보 업로드에 관한 클린 캠페인을 실천해야 한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경험 등의 부족으로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므로 허위 사실 등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습득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이나 현실과의 괴리감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이 학교차원에서 정규과

정으로 개설되어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이 지속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 교육의 주가 되는 곳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의식에 선별적인 정보습득과 올바른 댓글 문화 등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한다면 정확한 지식습수와 건강한 자아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국가 주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윤리가 개발되어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I. Goldberg. (1995). *Internet addiction disorder un fenomeno sociale in espansione*. New York : New Yorker Magazine.
- [2] D. S. Kim, Y. S. Kim, S. H. Kim, Y. H. Jang, M. S. Jang, J. Park, (2012),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7(4), 937-944.
- [3] Me-Young Jang, Gyun-Young Kang, (2017), Covergent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79-87.
- [4] Mi-Jung Yeon, Keon-Yeop Kim, Moo-Sik Lee, Jee-Young Hong, (2010), A Comparison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 41-47.
- [5] J. A. Sul. (2010). A Study on Korean Teenagers' Internet Usage and Motivation for Online Communication Activities.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14, 43-72.
- [6] Sung, Eunmo & Choi, Hongil. (2017). Exploring types of classes on youth life-management competency with latent class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28(3), 295-318.
DOI : 10.22156/JKCS.2018.7.1.001
- [7] E. K. Lee, M. K. Jang & I. S. Jun. (2015). The Characteristics by the Types of Game Behavior among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2(2), 269-295.
- [8] Joong Kyu Park, Sung Man Bae, (2018), The effect of Internet use motiva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emotional problem on Internet addiction for early adult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1(2), 419-434.
- [9] S. K. Lee. (2017) Global Digital Health Care Technology Trends and Challenges. *Weekly ICT Trends*, 1826, 1-12.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 [10] C. Borrell, C. Muntaner, J. Benach & L. Artazcoz. (2004). Social class and self-reported health status among men and women: what is the role of work organization, household material standards and household labour? *Social science & medicine*, 58(10), 1869-1887.
- [11] Mun-Hee Nam, Jeoung-mi Kim, (2014),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health behavior, sexu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4), 367-378.
DOI : 10.1016/S0277-9536(03)00408-8
- [12] Kyung-Jin Min, Keun-Jo Kim, Chun-Geun Cha, (200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Health Index of the Aged in Daejeon Area, *Korea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2), 1-26.
- [13] Ahn DG (2005) An influence of adolescents' quality of life on playing online games. *Studies on Korean Youth* 16:369-403.
- [14] S. H. Jung & J. Park. (2013). Effect of life stress on the sleeping disorder of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8(2), 345-353.
- [15] M.in-Kyung Kim. (2016).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 [16] Lee Young-Geul, Kim Ah-Rae-Mi, Kim Ju Ill, (2011),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Adolescent Internet Use, *Studies on Korean Youth*, 22(3), 231-259.
- [17] T. L. Finlayson, D. R. Williams, K. Siefert, J. S. Jackson & R. Nowjack-Raymer. (2010). Oral health disparities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self-rated oral health in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n life. *Am Journal of Public Health*, 100, 246-255.
- [18] Sin-Young Park, Sun-A Lim, (2018), Convernece factors influencing affect the oral health with subjective depression experience of adolesc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45-53.
- [19] Go-Eun No, Seung-Yeon Lee, (2016),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Overuse :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h and Social Anxie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1), 205-225.

- [20] K. S. Won, A. H. Lee & I. H. Song. (2015).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3(2), 39-72.
- [21] Sung, Eunmo & Kim, kyun Hee.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71, 177-202.
- [22] Jae-Sook Lim, Bon-Suk Gu, Ouk-Sum Cho, (2018), The Effect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35-143.
- [23] Yul-Mai Song, Sunah Kim. (2018). Convergence Study fo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ing on Internet Addiction in Patients with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the Jorea Convergence Society*, 9(7), 337-346.
- [24] K. M. Lee & S. S. Chang. (2004). Self-concept, Escaping from the Self and Social Support of Internet Addictive Use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4), 743-756.

백 승 희(Baek, Seung Hee) [정회원]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201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공학박사)
- 관심분야 : 기술경영, 기술정책
- E-Mail : ql00sh@gmail.com

김 지 현(Kim, Ji Hyun) [정회원]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16년 8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 박사
- 관심분야 : 역학
- E-Mail : muchicchun@naver.com